

전주매일

발달지연 아동 지원 나선다

부모 · 교사 · 전문기관이 함께 돕도록 구성돼

전북자치도는 이번 유럽 석학들과의 협력을 계기로, 도내 연구기관과 유럽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유럽 석화들의 방문은 전북 바
이오산업이 세계 수준의 연구 생태계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임명권 준 이 대통령의 선택 '주목'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국방 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해 군 관련 사건을 맡는 데 적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공정성과 균형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의 선택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당한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장으로 재직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출
국금지 사건을 수
사 중이던 수원지
검 안양지청에 부
압력을 가한 혐의로
은 일관되게 이를 인

무죄 확정 직후 이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소당할 땐 인생이 절다난다"는 현실에서, "실제로 검찰 개혁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토해 하나 내걸고 기소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합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검찰 해체 수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진행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론화가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